

이성해 대광위원장 ‘광역교통 개선 위해 지자체·전문가와 머리 맞대’

- 10일 수도권 동북권(구리·남양주) 지역 광역교통개선방안 논의 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0일(금) 서울에서 수도권 동북권 지역의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“수도권 동북권 광역 교통정책 간담회”를 개최하였다.
- 수도권 동북권(구리·남양주) 지역은 작년 10월 발표한 「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」에 남양주 진건지구, 구리 갈매지구 등 4개 지구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만큼 신속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으로,
- 이번 간담회에는 구리·남양주시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및 경기도시공사(GH),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.
- 이 위원장은 “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다수 개발사업이 집중된 만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, 개별 사업지구 단위별로 마련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의도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”라고 지적하면서,
- “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동북권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짚어 보고, 도로·철도·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의 수단을 총망라하여 해당 권역 주민의 출·퇴근 편의 제고, 나아가 광역교통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- 특히,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한 철도(역) 신설·연장 및 도로·교량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도 “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교통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”라고 덧붙였다.

-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“수도권 동북권 주민의 출·퇴근 등 광역교통 불편은 현재 진행형”이라고 언급하면서,
- “수도권 동북권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대형 사업도 필요하지만, 현재 주민들이 당면하는 광역교통 애로사항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광역교통 보완대책도 대광위와 협력하여 조속하게 수립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2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